

# Sabic, MEG 350만톤으로 확대

## 에틸렌 130만톤 예정대로 추진 ... PE·PP 플랜트도 건설 계획

세계 11위 석유화학기업인 Saudi Basic Industries(Sabic)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부근 Yanbu 부지에 에틸렌(Ethylene) 130만톤 크래커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PE(Polyethylene) 80만톤, MEG(Monoethylene Glycol) 70만톤 및 PP(Polypropylene) 35만톤 플랜트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abic은 생산능력 확대, 국가개발프로그램(National Developing Program)에 따른 개발계획 및 세계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한 2004년 플랜을 발표했다.

Sabic은 2004년 초 Al Jubail 소재 MEG 62만5000톤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05년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Al Jubail에서는 2번째, Sabic 전체에서는 7번째 MEG 플랜트가 될 전망이다.

Sabic은 현재 Al Jubail에 MEG 57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말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2개의 MEG 플랜트가 가동에 들어가면 Sabic의 MEG 생산능력은 총 350만톤으로 확대되며 이는 세계 수요의 20%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Sabic은 11억달러를 투자해 2002년에 인수한 전 DSM 석유화학 사업인 Sabic EuroPetrochemicals 사업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abic은 125만톤 생산능력에 달하는 네덜란드 Geleen 소재 2개 크래커의 생산능력을 55만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19>